



부천고용노동지청 **청렴** 웹진

『청렴IN부천』

제4호 2019. 10.

### 01. 세계속의 청렴이야기

**<옴부즈맨 제도의 원조, 스웨덴>**

- \*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(CPI) 상위권에는 언제나 스웨덴이란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.
- \* 그 근간에는 바로 ‘옴부즈맨 제도’가 자리잡고 있는데, ‘옴부즈맨(Ombusman)’이란 단어도 스웨덴어로 ‘대리인’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.
- \* 1809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행정 감찰관 제도로서,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세계 80여 개국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.
- \*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며, 국민권익 보호, 부패 방지, 행정심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### 02. 꼭! 알아야 할 청렴 ISSUE

#### <부패·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>

- ▣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활성화
  -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, 건전지 재활용 의무 위반 등 행위를 신고한 부패·공익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 5,4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.
  - 이러한 신고로 인하여 국가 등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총 21억 8천여만원에 이르며, 관련 법에 따라 수입금액의 4~30%까지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.
  - 이와 관련한 주요 위법 사례로는, 연구비를 가로챈 신학협력 업체,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보급여를 가로챈 병원, 요양보호사 허위등록으로 급여를 가로챈 요양원 등이 있다.

### 03. 달라지는 청렴 관련법

#### <공공재정환수법 제정, 시행(2020.1.1.)>



- ▣ ‘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환수 등에 관한 법률’ 신설
  - 약 214조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시 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 제재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(19.4월 국회 통과, '20.1월 시행)
  - 이 법이 시행되면 각종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·과다 청구, 목적과 다르게 사용, 잘못 지급된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금액을 환수
  - 누구든지 소관 기관 또는 감독기관 권익위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, 상습 청구자는 심의를 거쳐 명단이 공표됨

### 04. 이달의 청렴 웹툰: 공익신고자 보호제도



제작: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☎ 044-203-2922 / 자료제공: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☎ 044-200-7757

\* 작품 출처: 국민권익위원회